

숲의 도시 나는 안산에 산다

안산시 시정소식지 제 455호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여름은 덥지만, 물놀이는 시원하다!
아이와 어른이 다르지 않다.
나무 그늘까지 한몫하니, 확실한 행복!



05

안산 첫 반려견 놀이터

반월스마트허브 내 약 950평 규모로 구성된
성곡반려견놀이터가 7월에 개장한다.

08

안산착한가게 시리즈

도깨비 왕감자탕 - 매일 12시간씩 우려낸 국물
센텀한식뷔페 - 모녀가 운영하는 정갈한 맛집
장군만두 - 육즙이 살아 있네~

10

안산 김홍도축제

2019 안산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12일부터 14
일까지 화랑유원지에서 김홍도축제가 열린다.

12·13

안산 캠핑장 소개

올 여름, 대부도에 가서 캠핑하자!
붉은 노을과 함께!

19

6.13지방선거 당선자 명단

정말 시원하고 가장 빠르게 '안산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산소식 e-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인터넷 검색창에 '브라보안산'을 쳐보세요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

발행일 2018년 6월 27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ansan.net e-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안산시 보건소 폭염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 ‘집중’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을 대비해 단원구 독거노인 및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지원반’ 특별(TF)팀을 구성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간호사 29명을 동별로 배치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독거노인 및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수시 안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은 안산시 보건소가 매년 진행해오던 것으로 여름철 폭염관리 외에도 겨울철 한랭 대비, 수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가 병행된다. 가정방문은 건강관리 뿐 아니라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에게 말벗도 되고 정을 나누며 안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들로,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단절 되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단원보건소는 가정방문 건강관리는 초지복지관 돌봄 서비스와 119안전재난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전담인력은 집합교육이나 가정방문 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쿨 스카프와 부채 등 폭염대비 물품을 지원하고 폭염대비 대처방법도 반복적으로 안내한다.

단원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보니 같은 내용이라도 가정방문을 통해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 자제 등 폭염대비 9대 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하며 여름철 폭염 시 행동요령 등도 교육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낮 장시간에 걸친 야외활동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올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에 걸린 사람은 4명 중 1명꼴로 노인에게 발생했으며, 총 11명 사망자 중 6명(54.5%)이 만 65세 이상자로 나타났다.

◇ 문의 : 안산시 단원보건소(031-481-3512)
안산시 상록수보건소(031-481-5953)
송민아 명예기자 _junseo1000@hanmail.net

안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개정 시행 “이제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된다”

안산시는 경조사비 및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과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대폭 반영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올해 4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 행동강령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됐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인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에게 부정한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반영했다.

또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인사·계약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공무원 등의 가족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규정을 담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민간에 대한 청탁 유형을 ▲출연·후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으로 규정했다.

퇴직 공무원 출신의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을 제한하는데,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때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했다. 참고로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됐으며 화환이나 조화는 이전과 동일한 10만 원이다. 선물 가액 범위는 기존 5만 원에서 농수산물 등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20~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다.



55번과 101번 ‘초지역’ 경유

서해선 개통에 따라 시내버스 2개 노선 조정

6월 16일 서해선(소사~원시선)이 개통됨에 따라 시내버스 2개 노선(55번, 101번)을 조정·운영한다. 55번은 기존 상록수역~고잔신도시~안산역~정왕동~시화공단을 운행했으나, 고잔신도시 다음 초지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했다. 101번은 기존 안산역~선부동~와동~시청~한대앞역~상록수역을 운행했으나, 안산역 다음 초지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했다. 시는 서해선 개통 이후 버스 이용 추이를 모니터링해 추가로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면밀히 검토 후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 문의 : 안산시 대중교통과(031-481-2955)

만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실시

안산시 단원·상록수보건소는 만65세(1953.12.31.이전 출생자)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폐렴구균은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되는 균으로 초기에는 감기 정도의 증상을 보이지만 고령자나 만성질환자가 감염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예방접종이 필수이다. 만약 65세 이전에 병의원 등에서 접종을 한 경우라면 5년경과 후 1회 추가접종이 필요하므로 방문 전 보건소에 접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렴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로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 문의 : 안산시 단원보건소(031-481-3513~5)
안산시 상록수보건소(031-481-5971~3)

입시 맞춤형 전략 지원 ‘2019학년도 대입설명회’ 개최

안산시와 안산인재육성재단은 7월 7일 14시부터 17시까지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맞춤형 진학전략 지원을 위한 ‘2019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대학 입시 준비로 어려움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진로 진학센터 최영진 강사를 초청해 ‘2019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의 이해와 올바른 지원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1:1 진학 컨설팅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선정한 공교육 강사 20명이 개인상담부스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입시상담, 적성검사 등의 맞춤형 진학상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1:1 진학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재단 사무국으로 접수하고, 모의고사 성적표와 학생기록부를 지참해 참여하면 된다.

◇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031-414-0924, 070-4400-8579)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마을 만들어요” 단원구 선부1동, 치매안심공동체 ‘기억 품은 마을’ 운영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질병 ‘치매’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안산시는 단원구 선부1동을 치매안심공동체 ‘기억 품은 마을(이하 기품마을)’로 선정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로 했다.

치매안심공동체 ‘기품마을’은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담인력 12명이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캠페인, 교육 등 치매 관련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 치매안심공동체 활동을 도울 기품마을 리더와 치매극복 선도 단체도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양성하게 된다. 치매환자를 돕는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자의 실종을 막아줄 지원

체계 구축과 가족교실을 운영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돕는다.

안산시는 전체 인구의 14.1%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75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는 연령대비 9.3%에 이른다. 노인복지 관련 시설은 복지관 3곳, 노인대학 2곳, 요양원 114곳 등이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마을 단위의 치매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 치매 예방, 조기검진 활성화, 치매환자 돌봄 강화에 힘쓰으로써 지역사회 중심 치매 통합관리가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산시는 ‘예방하면 비껴갈 수 있는 치매’라는 판단으로, 지역주민의 배려와 공감을 이끌어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문의 : 치매안심공동체 기억품은 마을(031-481-6556)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er.com

단원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진행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 적극 지원



단원보건소는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고, 이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시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단원보건소는 올 6월 기준으로 단원구 내 장애인 인구의 6.0%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5%이상 추종을 목표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크게 물리치료실 운영과 재활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재활프로그램은 재활운동교실, 순환운동교실, 장애인 체조교실, 공예 재활교실 등이다. 통증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 치료가 중심인 물리치료실은 만 65세 이상 안산시민 중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매월 말일 예약 후 주 3회 이용이 가능하다.

재활운동교실은 어르신 중 만성질환자, 스스로 운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1회에 8명 이내의 소그룹 재활운동을 진행하여 운동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차례씩 운영한다. 보호자 없이 운동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체조교실은 인원 수 제한 없이 진행되며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한 시간씩 진행된다. 지역 내 중학교나 특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쁘게 단장하다’라는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예쁘게 단장하다’는 단원보건소의 ‘단’과 장애 청소년 작업치료 교실의 ‘장’을 활용한 말로 사춘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기 꾸미기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인지 능력의 발달과 소근육의 발달, 사회참여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단원보건소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재활원 장애인 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사의 사고를 예로 들며 예방법 및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단원보건소 담당자는 “아이들이 직접 지체 및 시각 장애 체험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초등학교생들이 장애에 대한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키워나가고, 학교와 가정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031-481-3506)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예술 인문학으로 물드는 우리의 삶 감골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진행



안산시 감골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책과 사람, 현장이 함께하는 새로운 독서문화의 장소로 삼아 도서관을 인문학 대중화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생활과 현장 속에서 인문학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미술·비디오 아트·영화 세 부분으로 나뉘어 6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6월 21일에는 ‘우리고장 안산에서 만나는 현대미술’을 주제로 미술평론가 김진희 씨가 강연했다. 강연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현대미술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산업화·도시화된 사회가 형성되면서 시대적인 배경과 근대적 생활이 작품에 담기는데, 현대 글로벌 미술의 공통 언어가 19세기 말 유럽 모더니즘 미술에서 태동했음을 리얼리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상징주의, 아르누보 미술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6월 28일에는 모더니즘의 승리- 20세기 전반의 서양미술에 대해 알아보고, 7월 5일에는 화랑유원지 안에 있는 경기도미술관과 대부도 유리박물관을 탐방한다.

7·8월 휴가철이 끝나고 9월에는 5일부터 19일까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그와 마주하는 시간’을 계원예술대학교 이영철 교수가 마련한다. 10월에는 17일부터 31일까지 ‘나에게 스며드는 영화’를 주성철 씨네21 편집장과 송경원 영화평론가가 안내한다.

감골도서관 관계자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가 삶의 태도나 양식이라면 예술은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며 “길 위의 인문학에 프로그램에 함께해 풍요로운 시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청: 2차 8월13일 오전 9시부터 / 3차 9월 20일 오전 9시부터
감골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 접수, 선착순 35명 마감

◇ 문의 : 감골도서관(031-481-266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 개최

다문화 가족과 시민이 어울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다

‘2018 안산 다문화인을 위한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이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의 주최로 6월 10일 낮 12시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국의 부채춤과 인도 킨츠나 댄스, 중국의 성세홍자, 중남미국가들의 라울라 댄스 등 세계 여러 국가의 전통춤과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나뉘어 실내공연장과 야외광장에서 펼쳐졌다.

야외광장에서는 한국말이 서툴러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상담부스, 각각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나라별 홍보부스가 마련됐고, 어린이댄스팀 ‘민들레’와 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된 난타팀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실내공연장에서 진행된 각 나라의 전통춤 공연은 수준 높은 실력을 선보이며 객석을 채운 외국인과 시민 모두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외국인들은 자국의 문화공연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크게 환호하며 공연모습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저장했다. 낯선 외국생활 중 만난 자국의 전통공연에 눈물을 흘리며 향수에 젖는 이들도 보였다.

공연을 관람하던 한 시민은 “아이들이 올림픽기념관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어 우연히 행사

소식을 접하고 관람하게 되었다. 다문화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보는 다른 나라의 전통춤이 무척 신기하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한 외국인 관람객은 서툰 한국말로 “최고예요, 멋있어요.”라고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안산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아동복지기관, 다문화인 등 주위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행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다문화인 관련 행사가 원곡동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더 많은 안산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원곡동이 아닌 곳으로 장소를 정했다.”며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 우리 지역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소외되지 않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따뜻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031-405-2433)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한국 학교의 수업이 궁금해서 왔어요”

안산부곡초등학교, 방글라데시 학교와 교류



방글라데시에 소재한 월드라이프(World Life) 한국 엔지오(NGO) 산하 그레이스 제이 스쿨(Grace J. School) 학생 5명과 교직원 2명이 안산부곡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탐방은 5월 초 방글라데시 그레이스 스쿨 이계혁 교장이 공문으로 요청한 것을 안산부곡초등학교에서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한국 학교 학생들의 수업이 궁금했던 방글라데시 학교 방문단은 교장실에서 면담을 가진 후 과학실, 방송실,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등의 시설을 둘러봤다. 강당에서 진행된 장구 수

업 시간에는 한국 전통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을 인상 깊게 지켜봤다.

쉬는 시간에는 부곡초 학생들과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따뜻한 웃음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 학생들은 부곡초 영어 교사와 대화를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그레이스 스쿨 교직원들은 방글라데시 학교에 증축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부곡초 사서와 만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또한, 컴퓨터 보급과 활용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부곡초를 탐방한 방글라데시 학생은 “한국 학교의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행복해보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계혁 교장은 “한국의 여러 곳을 둘러보러 왔는데 부곡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 방글라데시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학교 관계자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번 탐방을 통해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한국의 학교와 교육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가깝게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부곡초등학교(031-487-729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 첫 반려견 놀이터, 7월부터 개장

반월스마트허브 내 약 950평 규모... 다양한 놀이기구 설치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안산 최초의 반려견 놀이터가 7월부터 반월스마트허브(옛 반월공단) 내 근린공원에 문을 연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인 '성곡반려견놀이터'는 단원구 성곡동 696번지 공원에 3천118㎡(약 950평) 규모로 개장한다.

사업비 총 1억4천3백만 원이 투입된 이 놀이터는 반려견 몸집 40cm를 기준으로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해 안전 펜스 내에 안전줄(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놀이터에는 반려견들을 위한 운동장과 운동기구, 물 마시는 시설, 마킹장(영역표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 배변봉투 공급함 등이 설치돼 있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피크닉 테이블과 벤치도 갖추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놀이터 정식 개장 전 체험단 신청을 받고 나흘 동안 시범운동을 실시했다. 지난 6월 16일 체험단으로 놀이터를 찾은 시민들은 반려견과 평화롭게 오후 한때의 시간을 보냈다. 가족들과 반려견 '브루미'를 데리고 온 장남복 씨(초지동)는 "아무래도 다른 공원에서는 반려견을 풀어놓고 놀 수 없는데 여기서는 편안하게 풀어놓고 아이들

과 놀 수 있고, 다양한 놀이기구들도 있어 좋다."고 말했다.

유기견이었던 푸들 '코리'를 입양해 돌보는 김진희·이승자 씨(본오동) 부부는 "평소 집 근처 어울림공원에서 반려견 산책을 시키며 많은 애견인과 어울려 지내는데, 차를 타고 따로 나오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강아지들과 산책하며 놀 수 있도록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씨는 "동물들이 자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인다."며, "팜플렛 문구처럼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은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이며, 비용은 무료다. 매주 월요일과 추석 연휴에는 휴관한다. 놀이터 이용은 동물등록과 종합백신, 광견병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견만 가능하며, 입장 시 수첩 또는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 놀이터 안전을 위해 만 13세 미만 견주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놀이터 출입 시 견주는 안전줄(목줄)과 배변봉투를 지참해야 하며,

질병 감염이 의심되거나 사납고, 발정이 있는 반려견은 입장할 수 없다. 만약 사용 중 반려견 간의 마찰이 생길 시 격리장에 격리 또는 퇴장 조치되며, 놀이터 내에서 흡연과 음주,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

안산시 농업정책과 김명기 주무관은 "인근 타 지역 시설과 비교했을 때 성곡반려견놀이터는 점프대와 터널 4종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조금 거리가 있지만, 주말에는 공단에 차가 없어 시내에서 자가용으로 15분이면 올 수 있으니 가족들과 나들이 삼아 즐겁게 놀러 오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안산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처음 생겼으니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호수공원 같은 곳에 훈련장을 갖춘 넓은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로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현재 안산시 동물 등록 대상 두수는 10만570두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1만8천327두에 이른다.

◇ 문의 :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481-2322)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제22회 안산시 독서감상작 공개모집

오는 9월 28일까지... 웹툰 포함 3개 분야 접수

안산 중앙도서관이 제22회 안산시 독서감상작을 공개모집한다. 범시민 독서운동 '2018 안산의 책'과 연계된 이번 공모는 시민의 독후활동을 장려하고 책 읽는 도시 분위기 형성을 위해 안산시가 마련한 행사다. 9월 28일까지 독서감상문, 독서감상화, 독서감상툰 3개 분야를 모집하며, 1인 3개 작품까지 접수할 수 있다.

대상도서관은 2018년 안산의 책으로 선정된 '피프티 피플(정세랑)', '미치도록 가렵다(김선영)', '장 꼴찌와 서 반장(송언)' 외 후보 도서를 포함한 총 20권이다.

모집 부문은 총 7개로, 독서감상문은 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 독서감상화는 초등 저학년부(1~3학년)와 유아부, 독서감상툰은 중·고등부와 초등 고학년부(4~6학년)로 나뉘져 진행된다. 올해 처음으로 독서감상툰 분야가 추가됐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각 1명씩 총 21명에게

안산시장이 수여되며, 선정된 작품은 연말에 작품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안산시민 및 지역 내 학교 재학생 그리고 직장인 누구나 응모 할 수 있다. 9월 28일까지 완성된 작품을 가까운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자료실에 방문해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중앙도서관 3층 사무실)이나 이메일(haniya90@korea.kr), 홈페이지(lib.iansan.net)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단, 독서감상화는 홈페이지 접수가 불가하며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각 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독서감상화 규격 8절 켄트지와 독서감상툰 출품신청서(8절)를 배포한다. 배포용 도화지가 소진될 경우 같은 규격(8절 도화지) 작품도 인정되며, 독서감상툰 출품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피디에프(PDF)파일을 다운받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독서감상문은 A4 기준 글자크기 12포인트로 일반부는 4매 내외, 중고등부는 2매 내외, 초등부는 1매 이상이다. 더 자

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 박하니 담당자는 "최근 웹툰을 많이 보는 추세에 따라 올 해는 감상툰 분야를 새롭게 신설해 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하게 될 것 같다"며 "특히 올해는 유아 부문 대상 도서 5권을 미리 선정 했고, 홈페이지에서 접수도 가능하니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독서감상작 수상자 발표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 문의 : 안산중앙도서관(031-481-3865)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amil.com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⑧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업체 '미타 라이브' - '함께'라는 즐거움으로 상생



“아름다운 방향으로 예술의 바다를 향해하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콘텐츠산업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영상은 콘텐츠 산업의 기반이자 원동력이 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이 모여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하며, 2017년 3월 예대캠프에 입주한 '미타 라이브' 김동현 대표(26세)를 만났다.

고2때부터 연극을 시작해 기획사 소속으로 연기했던 김 대표는 중앙대 연극영화과 전공으로 연출을 공부했다. 졸업 후 극단 '미타'를 결성해 인권 관련 연극을 해왔으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영상물 제작으로 전환했다. SNS로 영상이 유통되는 현실, SNS의 바다에 배를 띄운 것이다.

'미타 라이브(MITA LIVE)'는 '아름다운 미(美)'에 '방향 타(舵)', 키를 움직여 배의 방향을 잡듯 '예술은 아름다운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모토로 영상을 제작한다. 기획 없이 찍는 바이럴 영상(SNS용 영상 콘텐츠 형태)이나 이동 시에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짧은 러닝타임의 스낵 영상을 제작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해 아티스트의 예술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유명하지 않은 가수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수반되는 시간적·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콜라보(collaboration, 공동작업) 형식으로 제작했다. 소속사가 없거나 자본이 빈약한 가수들이 많은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앨범을 낼 수 있도록 재능기부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해주고 앨범 수익의 지분을 받는 형식이다. 이후 이들이 작업한 영상을 SNS를 통해 시청하는 독자들이 생기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구독자가 늘었고, 음

반 제작업체에서 가수의 앨범과 관련한 영상 제작 의뢰를 받기도 했다.

래퍼(rapper) '디젤'의 라이브영상, 길구봉구와 박보람의 '결별' 외에 조뎀의 '나는 미친 색이었다', 온에어 '러브 이즈 오버(Love is over)' 등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으며, 광고와 영화 쪽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온다. 연극 했던 경험을 살려 제작한 단편영화 '비잉 미(Being me, 내가 되다)'는 IPTV와 영화 유통 앱 '왓차 플레이'를 통한 론칭을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댄스 팀에게 재능기부 해주었던 것이 인연이 되어 댄스 팀을 통해 광고 제작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는 현상이 재미있다."며 음악을 하던 동료와의 호흡을 자랑한다. 영화에 가수들이 함께하는 것,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모여 서로의 수요가 되는,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는 즐겁고 신기한 경험으로, 사업이 곧 즐거운 향해가 되고 있다. 미타 라이브는 수익을 재투자해 장비를 갖추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대형 제작사와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장비를 사용해 질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게 미타 라이브의 판매전략이자 특징이다. 더구나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청년큐브 입주 후 책임감이 많아졌다는 김 대표는 "큐브 입주가 미타 라이브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습니다. 명석이 깔리니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공간 지원뿐 아니라 팀의 목표와 성과에 따라 프로모션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며 동기부여를 하니 힘이 난다."며 웃었다.

라이브를 포함하여 아티스트의 곡 콘셉트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는 미타 라이브는 앞으로 상품이나 기업 브랜드, 서비스, 정책 홍보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다. 나아가 온라인으로 연재되는 웹 드라마와 웹 다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독립 영화 제작까지 확장시키겠다는 포부로 예술의 바다를 순항 중이다.

◇ 문의 : 미타라이브(010-8837-2084, www.facebook.com/FilmbyMITA)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페미니스트 북카페 '페م(FEMM)'에서 사회이슈를 논하다

여성의 언어로 많은 질문이 오가는 소통의 장 마련

윙기 있는 고백 '미투(Me Too)' 운동이 문화계부터 정계, 직장까지 이어지면서 여성운동이 함께 참여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투 운동 이후 국민 71.3%는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미투 운동에 힘을 보태겠다는 움직임으로 페미니즘 도서가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오르고, 판매 되는 페미니즘 도서의 스펙트럼도 다양해지고 있다. 상록구 사동(상록구 석호로 207)에도 페미니스트 북카페 '페م(Femm:페미니즘의 줄임말)'이 들어서면서 여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장이 마련됐다.

"사회 이슈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의 여성주의 모임인 '뭣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붉은뭉소리' 멤버들의 상상이 헌책방과 도서관, 서점과 카페를 겸한 페미니스트 책방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여성운동 강사, 공부방 선생님,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등 7명의 펴미기들이 십시일반 시간을 내어 운영하기 때문에 책방을 열어놓는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하지만 동네 주민과 이용객들로부터 "이런 공간이 동네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인사도 자주 듣는다. 수·금요일 10:30~14:30, 목·토·일요일 10:30~21:00, 월·화는 휴무다.

페미(femm)에서는 페미니즘 신간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펴미기 권미현 씨는 "책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함께'하기 위한 훌륭한 매개체다. 미투 집회에 참석하거나 탈 코르셋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페미니즘이 실생활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중학생 아들과 함께 토론하기로 한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라는 책을 펼쳐 보였다. 이어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재생산해내는 현실을 날

카롭게 비판한 '부드럽게 여성을 죽이는 법'과 많은 의무와 책임에 놓여있는 엄마들을 위한 '엄마는 이제 미안하지 않아'를 추천했다.

여성문제와 밀접한 사회, 정치, 철학책들도 구비돼 있으며, 책과 영화를 함께 보고 토론도 한다. 여성주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마더피스 타로' 과정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시야를 넓히며,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는 글쓰기 모임도 이루어진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는 영화상영 후 시네마 토크 시간을 갖는다. '피의 연대기', '공동정범', '판타스틱 우먼' 등 독립·다큐영화나 쿼어 영화는 상업영화에 비해 상영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극장을 대관하거나 공동체 상영으로 대중을 만난다. 차와 맥주, 와인을 마시며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고, 마룻바닥이 깔린 세미나실에는 어린이도서와 보드게임도 구비돼 있다.

◇ 문의 : 페(031-4075-0308) /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세계 문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문화세상 고리’

다문화 세상으로 가는 문(門), 그 문을 여는 사람들



니하오, 곤니찌와, 신짜오, 줌
립쑤어, 압살라알라이쿰, 스
트라스트부이쎄, 봉주르!
사회적기업 ‘문화세상 고
리(이하 문고리, 대표 백승
희)’에서 활동하는 다문화 강
사들의 국가별 인사말이다. 중

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콩고에
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 도시 안산에서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에게 다문화이해 교육을 한다.

국내 외국인 거주자 200만 명 시대지만 여전히 일상 속
에서는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안산에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온 여성들이
우리 문화와 세계 문화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것.
2011년부터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옛 외국인주민센터)에
서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던 이들이 2014년에 다문화 교육
협동조합 ‘문고리’를 설립, 2016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도
받았다. 문고리는 나와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로, 문
고리를 잡아야 다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다문
화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겠다’는 각오가 담긴 이름이다.

문고리의 사업은 교육, 축제, 원곡동나들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뉜다.

대표적 교육사업인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수업은 유아부
터 초중고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한다. 다
른 도시에 비해 다문화 이해 교육이 지속적으로 잘 이뤄지
고 있는 안산시에서는 뻘하고 식상한 교육은 통하지 않는
다. 전통 의상이나 악기, 놀이교구를 적극 활용하고 그림
자 연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국의 문화 교육을 하는 체
험식 교육을 한다. 백승희 대표는 “차별화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선
입견이 많이 깨졌다. 방학에 운영하는 청소년 다문화 캠프
에서는 세계음식을 만들기도 하는데 신청 열기가 뜨겁다.”
며 미소를 지었다.

두 번째 사업으로 태국 송끄란 축제, 세계인의 날 축제 등
지역축제에 참여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회통
합에 힘쓴다. 세 번째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다문화
특구가 위치한 원곡동을 함께 둘러보는 ‘원곡동 나들이’다.
미션활동을 통해서 외국인 관련 정책과 편의시설을 알아
보고, 원곡동 탐방 후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
자 제작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

키스탄의 시장을 재현하면서 자국민들과 현지 언어로 소
통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문고리 강사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 그 이상
의 것을 얻는다. 백 대표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외국인, 여
성, 경력단절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저희 활
동가들은 이런 제약을 뛰어넘어 각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
부심도 남다르고, 1인 1표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조합원 스
스로가 문고리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해 만족도도
높다.”며 “안산 최고의 다문화교육기관을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 문의 : 문화세상 고리(031-411-1150)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안산 최초의 독립서점 ‘모모책방’

고양이 ‘모모’와 독특한 독립출판물이 있는 곳



상록구 사동 골목에 자리 잡은 ‘모모책방’은 안산에 처음으
로 문을 연 독립서점이다. 책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작가
개인이 도맡아 진행하는 독립출판물을 취급한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책들은 시중 대형서점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것들이다. 다양한 판형에 독특한 디자인과 소재를
담고 있는 책들은 책방지기의 취향에 따라 선택되고, 그 취
향에 이끌린 사람들이 책방에 들른다. 모모책방은 개성 있
는 책을 만드는 독립창작자들과 다채로운 책을 기다리는
시민들을 연결하는 고리다.

디자인팀 ‘강장공장’의 공동대표 강진영, 장재욱 씨와 고양
이 ‘모모’가 함께 운영하는 ‘모모책방’은 지난 4월 후곡놀이
터 근처 골목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지난해

울 사회적경제 캠프에 참가해 독립서점의 사례를 접한 이
후 막연히 꿈꿔 오던 일이 생각보다 빨리 실현된 것. 장 대
표는 “디자인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둘 다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사람들과 소통의 매개체를 만들고 싶어 고민하
던 중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책으로 사람들과 더 소통해보고
싶었다.”며 “알음알음 작가를 섭외해서 책을 입고해야 하는
독립출판물의 특성상, 다양한 작가들과 직접 소통하고 교
감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모모책방은 오가던 주민들이 잠깐 들려 고양이와
놀다가거나, 관심 있는 책을 가볍게 둘러보는 친근한 공간
이 됐다. 갓난아기를 안고 책방을 찾은 이보람 씨는 “동네
에 작은 책방이 있는 게 참 좋다.”며 “고양이 모모가 있어
자주 들리게 되고, 일반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책들을 접
할 수 있어 더 궁금한 곳”이라며 반겼다.

일반서점처럼 많은 책을 구비하지는 않았지만 모모책방에
서 만날 수 있는 책들은 독특한 형식과 이야기를 담고 있
다. 강진영 대표는 “진짜 좋은 책들을 발견했을 때는 자발
적으로 이것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SNS에 글을 올려 책이
팔리기도 한다.”며 최근 입고한 책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청소년기 때 자취했던 경험을 담은 ‘자취(自炊)의 자취’, 청
소 일을 하면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과 일화를 만화로 엮
은 ‘저 청소일 하는데요?’, 고양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
보며 우리 사회 소수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예지

‘젤리와 만년필’ 등 표지 디자인만으로도 흥미를 일으키는
책들이 손님을 맞는다.

장재욱 대표는 “이곳에서는 평소 자주 접할 수 없던 책을
조금씩 읽다가 어느 순간 확 끌리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그건 사람이 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사람을 선택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곳에 와야 책으로부터 선택을 받거
나 운명적인 책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모책방은 적은 수량의 책을 입고하되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좋은 독
립출판물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서울에선 한
달에 한 권 팔리기도 어렵던 책들이 이곳에선 네댓 권씩
팔리는 일도 있었다. 실제로 취재 중 ‘마포 술꾼의 유럽성
지순례’란 책이 한 주민에게 팔리는 것을 보며, 책이 사람을
선택한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했다. 이후 ‘작가와의 대담회’
와 함께 청년들이 직접 책을 쓰고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젝
트도 계획하고 있으며, 펜화 수업과 컴퓨터로 디자인 툴을
배우는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 문의 : 모모책방(0507-1307-5084)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경기 안산시 상록구 네고지길 14
www.instagram.com/momo__books
www.facebook.com/m0m0books



안산착한가게 시리즈-⑥

상록구 이동, ‘도깨비 왕 감자탕’

깊은 맛을 내는 묵빠로 매일 12시간 우려낸 국물을 사용...



4호선 한대앞역 맞은편 먹자골목에 들어서면 다양한 먹거리와 반짝반짝 활기찬 거리 분위기가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이끈다.

이곳 먹자골목에서도 한자리에서만 12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도깨비 왕 감자탕(대표 정완경)’이 이번호에 소개할 안산시 착한가게다.

식당 간판에 새겨진 빨간 도깨비 얼굴이 정감 있고 반가운 ‘도깨비 왕 감자탕’은 푸짐하고 맛있는 감자탕과 숙취해소에 좋은 해장국이 대표 메뉴로 해장국(5천 원)이 착한가격메뉴로 선정되어 있다. 해장국이 착한가격메뉴로 선정되기까지는 소소하지만 훈훈한 나름의 역사가 있었다.

정완경 사장은 “처음 식당을 인수하고 요리에 대해 가르침을 전수받던 중 노력한 만큼 국

물의 깊은 맛이 나지 않아 혼이 많이 났다. 당연히 손님도 줄고 식당운영이 잘 안됐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당시에 6천 원에 팔던 해장국을 5천 원으로 가격을 내리고 깊은 맛을 내기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해장국이 가격이 저렴한데 맛도 있다고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우리 식당의 대표메뉴가 되었다. 손님들이 우리가게를 안산시 착한가게라고 널리 알려주면서 식당이 번창하게 되었다.”라며 손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이직률이 높은 직종인데 몇 년째 함께 식당을 지켜주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정 사장은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식당을 찾아주는 단골손님들을 생각하면 가격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감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깨비 왕 감자탕은 해장국의 주재료가 되는 뼈를 가격이 더 높더라도 깊은 맛을 내는 묵빠를 사용해 매일 12시간 씩 우려낸 국물로 당일 판매해 모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식당 내부는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쳐 깨끗하고 무척 넓다.

24시간 영업하며 명절 이틀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건물 주차장과 가게 앞 도로에 주차도 가능하다.

주소 : 상록구 양지편로 28 전화 : 031-419-0487

◇ 문 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842)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센텀 학식뷔페 모녀가 운영하는 정갈한 맛집



센텀 한식뷔페는 모녀가 운영한다. 집밥처럼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은 정갈하고 간도 세지 않아 누구나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또한 저렴한 가격임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다. 소 불고기, 잡채, 아삭이 고추, 쌈장, 어묵볶음,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등 10가지가 넘는 반찬과 국이 매일 바뀌며 나온다. 거기에 후식으로 요거트와 자판기커피, 매실차와 수정과까지 준비되어 정말 푸짐한 한 끼 식사가 가능하다. 센텀 한식뷔페는 안산시청 옆 소방서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 위치해있다.

점심은 11시 ~ 14시, 저녁은 17시 ~ 18시까지 운영하며 가격은 5천5백원이다. 손님이 사용한 식기와 도구는 바로 삶아내며 2개월에 한 번 방역업체 소독을 해 더욱 깔끔한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주소 : 단원구 고잔로 57-9 205호 / 전화 : 010-3530-3281 / 정기휴일 : 따로 없음

장군만두 육즙이 살아 있는 진짜 만두



장군만두는 중앙역 건너편 롯데백화점 가는 길목, 동아아케이트 건물 1층에 위치했다. 모락모락 나는 김과 맛있는 냄새가 행인들의 발걸음을 멈춘다. 아침에 만든 재료를 쓴 고기만두는 육즙이 살아 있어 쫄깃함이 제대로 느껴진다.

이 만두가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매장 밖의 포장손님이 끊이지 않게 만드는 메인 메뉴다. 포장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먹고 갈 수 있다. 만두뿐만 아니라 라면, 김밥, 쫄면, 만둣국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고기·김치만두 1인분(10개)에 4천원, 왕만두 1개 1천원, 쫄면과 튀김만두가 같이 나오는 쫄튀세트는 8천원이다.

만두는 매일 아침 직접 만들기 때문에 만두가 다 팔리면 문을 일찍 닫으니 늦은 시간에 방문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주소 : 단원구 고잔2길 42, 115호 / 전화 : 031-406-0373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지구를 살리는 쓰레기 분리배출법- ②

“쓰레기를 줄이면 경제가 살고 환경이 산다”

19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시작된 후 약 20여 년이 흘렀다. 쓰레기 종량제는 도입 당시 목적을 달성했지만, 최근 중국이 폐기를 수입을 중단하며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자는 움직임과 함께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커져가고 있다. 이에 브라보 안산은 시민들이 재활용률을 높이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이달부터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생활하수 등 네 번에 걸쳐 생활폐기물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기 전 우리나라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매립했다. 이후 재활용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관리하면서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처리해 매립량이 대폭 줄었다.

분리 배출된 종이나 폐지는 새 종이나 노트로, 우유팩이나 종이컵은 두루마리 휴지나 미용티슈로, 캔·고철은 철판·강판으로, 빈병은 유리병이나 식기로, 페트병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 옷이나 부직포로 재탄생하는 등 분리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및 환경보호가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을 몰라, 수거된 쓰레기가 재분리 과정을 거치며 인력과 비용이 추가되고 있다. 안산시는 2017년 기준 연간 17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했으며, 그 처리비용이 467억 원에 달했다.

최소한의 소비·배출로 쓰레기 줄이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매립장으로 보내진다. 태우거나 땅에 묻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해성분이 누출되어 대기나 토양,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 처리량은 가급적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쓰레기 대란을 통해 ‘재활용 산업 안에서 가치가 하락한 쓰레기는 더 이상 재활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쓰레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최소한의 소비와 배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꼭 필요한 물건만 소비하며, 소비 과정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해악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휴지 대신 손수건을,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며 일회용품 소비와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분리수거는 ▲비우기 ▲헹구기 ▲분리하기 ▲섞지 않기의



4가지가 기본이다.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과 음식물은 닦거나 헹군다. 라벨 등의 다른 재질 부분은 제거하여 배출하고, 종류별·성분별로 섞이지 않게 구분해야 한다.

◆ 일반 재활용품

신문지, 전단지, 종이박스, 책자, 노트 등 종이류는 비닐코팅과 스프링, 테이프를 제거해 끈으로 묶거나 박스에 담고, 우유팩·음료수팩이나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워 헹군 후 압착해 종이류와 구분해 배출한다.

음료수병이나 기타 유리병은 뚜껑을 제거한 뒤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한다.

소주병이나 맥주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이 가능하다. 거울,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류, 내열식기류는 유리병류가 아니다.

태워지지 않는 종류는 매립해야 하는 품목으로 소량 건설폐기물 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류는 다른 재질로 된 라벨과 뚜껑을 제거한다. 필기구 등 복합 재질 플라스틱, CD나 카세트테이프, 플라스틱 그릇과 쟁반도 재활용되지 않는다. 캔·고철류는 압축하고 부탄가스·살충제 용기는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뒤 배출해야 한다.

스티로폼은 이물질(테이프, 주소 기재용 라벨 등)을 제거한 뒤 묶거나 투명비닐에 넣어 배출한다. 사과, 배 등 과일을 싸고 있는 개별 포장재는 유사 스티로폼이며, 유색 스티로폼과 함께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컵라면 용기와 오염 폐비닐류도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 유해 폐기물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나 아파트, 주택가 골목 등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폐건전지와 폐휴대폰은 버리면 환경오염, 분리배출하면 소중한 자원이 된다.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모아 동 행정복지센터나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재활용 나눔장터(3월부터 10월)에 가져가면 친환경화장지와 새 건전지로 교환해 준다.



대형 폐기물, 전화 한 통으로 ‘OK’

◆ 가전제품

가전제품은 대형이든 소형이든 배출 시 처리비용이 들지 않는다. 대형(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한 면의 길이가 1m 이상인 제품)은 자원순환공제조합(1599-0903)에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www.15990903.or.kr)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수거한다. 소형은 5개 이상일 경우 수거한다.

공동주택에는 소형(전기밥솥, 선풍기, 가스레인지, 믹서기 등 1m 이하인 제품) 전용수거함이 비치돼 있으며, 전용수거함이 없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은 재활용품과 구분해 내놓으면 된다.

◆ 가구류 및 실내·외 잡화류

가구류(장롱, 침대, 소파, 식탁, 책상, 의자), 각종 실내 잡화류(피아노, 씽크대, 쌀통, 이불, 욕조)와 실외 잡화류(보일러, 자전거, 타이어, 간판, 문짝, 물탱크)는 배출 시 폐기물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된다.

◆ 건축 폐기물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건축 폐자재, 페인트 통, 시멘트)은 배출량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다. 5톤 이상일 경우 전문 폐기물업체에 연락해야 하며, 5톤 이하일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건설용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배출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수거 신청을 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김영석 씨는 “쓰레기는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내놓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아 열심히 쓰레기를 치워도 표시가 나지 않을 때 무척 속상하다. 쓰레기가 방치돼 더운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쓰레기 배출 날짜와 시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353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해학과 풍자, 김홍도 정신이 살아나는 축제를 그린다 안산을 대표하는 '김홍도축제' 올 10월 개막 '2019 안산 방문의 해' 관광객 손짓



보령 머드축제, 함평 나비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해 보령 머드축제장에는 외국인 관광객 62만 명을 포함해 568만여 명이 방문했으며 지정기부금, 입장료 수입, 화장품 판매를 통해 15억 2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포럼은 2017 보령 머드축제의 생산유발 효과는 996억 원, 소득유발효과는 181억 원의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정말 '잘 키운 지역 축제 하나 열 기업 부럽지 않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보령 머드축제처럼 안산을 대표하는 지역축제, 안산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안산시는 '2019 안산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화랑유원지 단원각 앞에서 '안산 김홍도축제'를 기획 중이다. 조선 후기 천재화가 김홍도, 그의 해학과 풍자가 담긴 그림을 깨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즐기는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미술의 도시 안산을 대표할 '김홍도축제' 이야기다.

왜 '김홍도축제' 인가?

안산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 왜 '김홍도'여야 할까? 역사와 미술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화가 '김홍도'. 그는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풍속화가이며 임금의 초상화를 그린 국가 공인 당대 최고의 화가였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의 고향이 안산이었으며 성장기 주로 활동한 무대가 안산이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정작 안산에서는 '화가 김홍도'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 김홍도의 호를 딴 '단원구' '단원미술관' 등이 고작이다.



김홍도축제 전문위원이면서 20년 넘게 김홍도를 연구한 김홍도연구회 전득준 회장은 "김홍도 선생은 중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 출신인지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단원의 스승이었던 강세황 선생의 기록에 '젓니 갈 무렵부터 그림을 가르쳤다'는 글을 근거로 안산일 것으로 추정했는데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안산과 연결고리가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김홍도의 출신지가 안산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정도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김홍도가 사용했던 호 '서호' '단구' '단원' 이 안산의 지명이나 모임의 이름이었으며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바닷가 생물과 생활풍습은 당시 어촌이었던 안산의 모습을 보여준다. 김홍도의 고향이 안산이지만 정작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안산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전득준 회장은 "사실 이제야 안산시가 '김홍도'를 도시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많이 늦은 편이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았다'고 말하는 그 마음처럼 김홍도 선생이 남긴 유산을 마지막 13척 배 삼아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도 축제' 어떻게 진행될까?

중인의 신분으로 태어나 현풍현감까지 지냈던 화가 김홍도. 안산시가 준비하는 '김홍도축제'는 김홍도의 그림 속에 담긴 해학과 풍자는 물론이거니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까지 담아낼 예정이다. 김홍도축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차례 열리다 끊어졌는데 당시 축제 감독을 맡았던 김용호 화백(한국미술협회 사무처장)이 올해 축제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참여 '김홍도의 부활'을 지휘한다.

김 화백은 "이번 축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김홍도 그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당을 만드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홍도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200년 전 화가가 그림으로 전하고자 한 이야기를 지금의 시각에 맞게 풀어낸다면 역사와 미술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행사장이 될 화랑유원지 단원각 앞 정원은 지난해 가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한국의 정원'으로 꾸며졌던 곳으로 조선시대 생활상을 재현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김 화백은 "지금은 담장만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이 한국적인 담장을 모티브로 김홍도가 살았던 그 시대를 재현해 내고 나아가 풍속화 속 등장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한마디로 그림과 현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는 매년 김홍도의 그림 중 하나를 주제로 선택해 스토리를 꾸며갈 예정인데 첫 대회인 올해의 그림은 '노상송사(路上訟事)'다. 억울한 사람이 고을 원님의 행차길을 가로막고 탄원을 하자 원님이 즉석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을 주제로 마당극이 만들어지고 관람객들과 즉석에서 송사를 재현하게 된다.

축제 행사장에는 장터마당, 놀이마당, 농업마당, 교육마당

등 30여개의 관광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김홍도 골든벨, 풍속그리기 사생대회, 동상마임, 우마체험, 서커스, 전통음식체험, 프리마켓,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로 가득 찰 예정이다.

지역 대표축제 성장위한 발판 마련

김홍도축제는 단순히 일회성 축제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안산시가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확보한 국비 지원금이 축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축제 운영을 위해 축제사무국까지 꾸렸다. 축제사무국 박종홍 관광정책팀장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한 국내 지역 축제도 시작은 미미했다. 하지만 축제가 거듭될수록 전문가의 컨설팅과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광객이 찾아오는 축제를 만들었다. 안산의 김홍도축제도 다문화 인적자원과 결합해 나가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축제의 성패 여부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안산에서 부활한 천재화가 김홍도가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번 축제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 하혜경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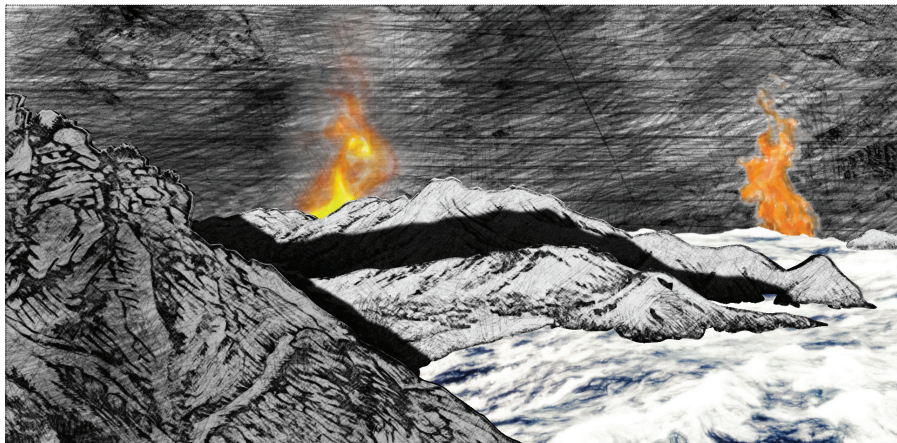
◇ 문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3059)





단원미술관, ‘첩첩화중(帖帖畫中)’ 전시회 개최

김홍도와 신윤복 모티브...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다”



2018년 믹스&매치(Mix&Match)展 ‘첩첩화중帖帖畫中’이 6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단원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 총10명 작가(팀)의 작품이 전시된다. ‘첩첩화중帖帖畫中(문서 첩, 문서 첩, 그림 화, 가운데 중)’은 ‘산이 겹치고 겹친, 산 속’을 이르는 말로, 깊은 산속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인 ‘첩첩산중疊疊山中’(겹쳐질 첩, 겹쳐질 첩, 뫼산, 가운데 중)’을 동음이의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번 전시의 주된 모티브는 ‘화첩첩帖’으로, 문서 첩(帖)은 ‘묶어 놓은 책’의 뜻을 더한다. 일종의 그림책이었던 화첩은 그림 감상과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같은 크기의 그림을 모아 책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개인 화첩의 경우 대부분 동일 주제와 화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작가의 작품 경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김홍도 · 신윤복의 결이 다른 풍속화

조선시대에 크게 성행한 화첩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대가로 손꼽히는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의 화첩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수많은 그림들을 남긴 두 화원은 동시대에 활동하며, 당시의 시대상과 생활상을 다룬 풍속화로 친숙한 예인들이다. 단원은 당시 서민들의

삶과 풍경을 기록했고, 혜원은 남녀 사이의 유희와 양반들의 생활상을 풍자하는 그림으로 향락적 분위기를 담아냈다. 같은 풍속화지만 결이 다른 작업으로 서로 다른 예술세계를 보여 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작가들을 통해 다양한 조형방식으로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의 화첩을 구현한다. 단원의 대표적 화첩인 ‘풍속화첩(風俗畫帖)’과 ‘금강사군첩(金剛四郡帖)’, 그리고 혜원의 ‘풍속도첩(風俗圖畫帖)’, ‘여속도첩(女俗圖帖)’ 등을 기반으로 과거의 생활상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재해석된 단원과 혜원의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다.

단원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의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며 다채로운 기획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다가갈 예정”이라며 “관람시간도 매주 수요일은 밤 9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8)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7 Culture Calendar 판화하다 - 한국현대판화 60년 일시 7.4.~9.9. 장소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실 퀀텀 점프 2018 릴레이 4인전 《김재민이 - 사슴은 뭘 먹고 사나요?》 일시 7.4.~7.29. 장소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청문당 북콘서트 ‘현대인, 책과 음악에게 묻다.’ 일시 7.7.16:00~19:00 장소 안산 청문당	2 제23회 안산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일시 7.3.13: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3 세종솔로이스츠의 세레나데 일시 7.4.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4 세종솔로이스츠의 세레나데 일시 7.4.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2018. 6. 30(수) - 8. 28(수) Mix&Match 전 첩첩화중 2018. 6. 30(수) - 8. 28(수) 단원미술관 임택, 임윤택, 제미영, 주환, 진현미, 김일현, 오조현, 프로젝트 그룹, 장동훈, 홍남기, 장형준	6 오페라 <분장실> 일시 7.6.19:30 7.7.15:00, 19: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7 인문학아카데미 홍수연의 「인상파와 함께 걷는 달콤한 유럽여행」 일시 7.7.11: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10 클래식 <로벤과 함께하는 Chamber Music Festival> 일시 7.17.11: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17 제26회 아시테지 국제어음축제 일시 7.23(월)~24(화)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19 업사이드다운 일시 7.24.10:30, 14:00 / 7.25.10: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20 인문학과 문화 생생특강 2018. 7. 4(수) - 7. 21(토) 홍수연	23 아동극 <업사이드다운> 일시 7.23.10:30, 14:00 / 7.24.10: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24 아동극 <걸어서 하늘까지> 일시 7.24.10:30, 14:00 / 7.25.10: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30 아동극 <업사이드다운> 일시 7.23.10:30, 14:00 / 7.24.10: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31 아동극 <걸어서 하늘까지> 일시 7.24.10:30, 14:00 / 7.25.10: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28 클래식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일시 7.28.17: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28 클래식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일시 7.28.17: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28 클래식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일시 7.28.17: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28 클래식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일시 7.28.17: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단원미술관(031-481-0505)



“올 여름, 대부도에 가서 캠핑하자! 붉은 노을과 함께!” 산과 바다가 공존하고 소나무와 파도가 함께 논다… “없는 게 없다”

“산을 넘나 싶었더니 어느덧 나타나는 바다.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먼저’ 취하고
하얗게 인사하는 파도, 붉게 물든 노을에 ‘맘껏’ 취한다”
어느 사보에서 소개된 캠핑장 기사의 한 대목이다.
대부도가 그렇다. 꼭 그렇다. 산과 바다, 소나무와 파도
그리고 붉은 노을까지 한데 어우러진 대부도의 캠핑장을 소개한다.

현재 안산시 관광과에 등록된 캠핑장은 총 9곳. 단원구 초지동(동산로 268)에 위치한 안산 화랑오토캠핑장을 제외하면 모두 대부도에 있다.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은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으며, 80개에 달하는 일반 야영장뿐만 아니라 카라반 4대와 글

램핑장 1곳까지 갖추고 있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온라인 예약의 경쟁률이 높아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나머지 8곳은 대부도 전역에 퍼져있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대부남동에 5곳이 있어 가장 많고, 대부동동과 대부북동, 선감동에 각각 한곳씩 운영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옆쪽의 지도를 참고하면 된다. 대부분의 캠핑장은 일반 야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곳은 20면을 보유한 고래숲관광농원이다. 카라반랜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반 야영장보다는 카라반에 집중해 현재 18대를 보유 중이며, 핀란드캠핑장에도 3대의 카라반이 있다.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글램핑(glamping)’도 인기다.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을 뜻하며 씨엘관광농원(12동)과 대부도캠핑성(10동)이 성업 중이다.

글램핑장 체험기

하늘에 닿아 있고, 하늘을 덮고 싶다

퇴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발해서인지 도로 사정이 편안하다. 최근 개통된 도로로 시원하게 달리다보니 어느덧 시화호다. 20여 km에 달하는 연육교를 달리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커져 가고 조각조각 떠다니는 작은 어선들의 ‘만선(滿船)’의 꿈은 내 꿈과 크게 다르

지 않다. 일상에 지쳐갈 즈음, 몸은 강렬하게 치유를 원하고, 그때 밖에서 하룻밤 쉬는 캠핑은 맞춤 해법 중 하나다.

캠핑장에 도착하니 먼저 출발한 동료들이 그릴에 고기를 굽고 있다. 직접 키운 다양한 쌈





대부도 캠핑장



1. 해솔길캠핑장
① 안산시 단원구 연목이길 11-1 (대부북동)
☎ 010-3305-4077



2. 핀란드캠핑장
① 안산시 단원구 끝망생이길 28-13 (대부남동)
☎ 010-9230-2918



3. 씨엘관광농원
①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974-13 (대부동동)
☎ 010-8756-0750



4. 고래숲관광농원
① 안산시 단원구 장불길 14 (대부남동) 외 6필지
☎ 010-7672-2447



5. 비치캠핑장
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559-106번지
☎ 010-4032-3379



6. 카라반랜드
① 안산시 단원구 수영목길 27-75(대부남동)
☎ 010-8583-1759



7. 대부도캠핑성
①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232-76(대부남동)
☎ 010-8650-5481



8. 탄도항노을캠핑장
①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7-2 (선감동)
☎ 032-888-0711

채소에 노릇하게 잘 구워진 고기 한 점 올리고 마늘에 쌈장까지 준비 완료. 한 손에 들려 있던 술 한 잔과 함께 입에 털어 넣는 순간, 세상은 행복의 물결로 넘쳐나고 때마침 산 너머 바다로 떨어지는 저녁 해는 사방을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인다. 덩달아 나와 동료들의 얼굴도 불그스레 변해가며 웃음꽃이 피어난다.

술잔이 여러 차례 돌고 적당히 취기가 오를 때쯤, 몇몇 동료들은 족구장으로 몰려가 공놀이를 한다. 비록 술기운에 평소 실력만큼 잘 하지는 못하지만, 헛발질도 실력인양 맘껏 뽐내고 바라보는 이들의 웃음소리는 석양에 실려 먼 곳으로 달아난다.

족구장 옆 시원스레 꾸며진 수영장의 푸른빛은 노을과 대조돼 더욱 더 푸르다. 울긋불긋 노랑 빨강의 보트와 물놀이 기구들이 손 내밀며 유혹한다. ‘한여름 밤 무더위는 나와 함께 물리치자’고.

대화가 밤늦도록 이어지며 하나 둘 자리를 비우기 시작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다른 두 명의 동료들과 함께 주변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한다. 세탁기가 마련돼 있는 화장실은 깨끗했고, 100명이 동시에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은 거대했다. ‘어차피 내일이면 또 더러워질 것 내일 한꺼번에 씻으면 되지’라는 가당찮은 핑계를 대며 샤워실은 패스.

글램핑장 안으로 들어오니 둘이 잘 수 있는 퀸 사이즈 침대와 함께 혼자 잘 수 있는 싱글 침대로 놓여 있다.

옆에는 화장대도 있어 여성 이용객들이 편할 것 같았고, 냉장고에 에어컨까지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는’ 구조다.

하루 종일 시달리며 방전을 앞두고 있는 휴대폰을 충전해 소생시키는 작업이 우선이다. 침대 머리맡에 안경을 벗는 것으로 오늘을 마감한다.

아침 6시. 지저귀는 새들의 웃음소리 사이사이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두런두런 일어나 내려졌던 글램핑장 지퍼를 올리고 다시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민다.

어젯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뜨겁게 헤어졌던 붉은 해는 여전히 붉지만 새로운 얼굴로 어제의 내일인 오늘을 만들고 있다.

지난밤 치열했던 상황들을 고스란히 얼굴에 남긴 동료들이 하나 둘 모이고, 어제 못 다했던 이야기를 나눈다. ‘집나오면 고생’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글램핑장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느껴지는 피로감은 덜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부도 ‘맛 집’에 들러 해장국을 나누는 것으로 이번 체험기는 끝.





〈나비잡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아기사진(또는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이름 · 생년월일 · 성별, 부모이름, 주소, 연락처, 태명, 태몽, 사연(탄생이야기,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5만원)를 드립니다.
(대상 :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생후 ~ 24개월즈음 아이를 둔 출산 가정)
※ 나비잠 : 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을 뜻하는 순우리말

효자 이해준

아기이름: 이해준

출생년월: 2018. 4. 태명: 튼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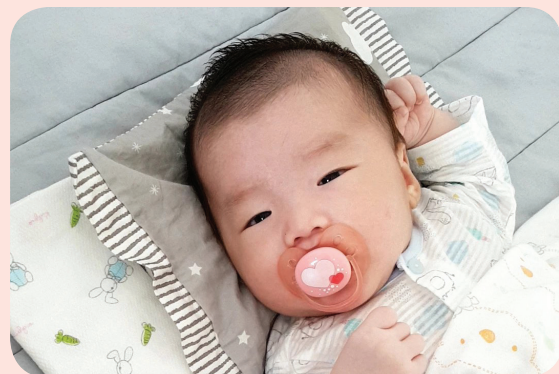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이름을 부르고 또 불리며 살고 있지만, 그 이름이 지어진 과정에 대해선 미처 생각해 본적이 없는 거 같다. 물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태명을 정할 땐 무엇보다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튼튼이’라 쉽게 지었다. 하지만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선 많은 난관이 있었다. 태명과 달리 이름은 평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려야 하는 것이다 보니 신중하고 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어준 이름 ‘이해준’. 이 아이가 이 글의 주인공이자 나의 아이다.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항상 축하인사를 하면

서도 “고생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물론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입덧 등 체력적 문제부터 출산의 고통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더욱 더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주위에선 “출산 후가 더 힘들다”며 엄포 아닌 엄포를 냈다. 처음의 해준이는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자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또 울었다. 세상 처음 느껴보는 힘듦이었다. ‘잠’이라는 게 평소에는 규칙적이었다가 이러한 과정을 겪다보니 주위에서 들었던 말들이 새삼 이해가 됐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어느새 해준이는 낮에는 잘 놀고 밤에는 5시간 이상씩 잘 잔다. 주위의 말은 “최고의 효자”로 바뀌었다.

물론, 우리 해준이는 태어난지 아직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기다.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커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지 정해지지 않은 흰색, 순백 그 자체일 것이다. 다만 우리 부부는 해준이에 게 좋은 본보기이자 좋은 거울이 되려 노력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부부만 봐도 지



난 시간동안 부모님에게 많은 고통을 준 것처럼 해준이
가 주는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부
모님만큼은 못하겠지만, 그에 걸 맞는 부모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준아! 엄마랑 아빠는 누구보다도 좋은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테니, 해준이도 아프지 말고 몸 건강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해(바다 해), 준(뛰어날 준)이라는 이름처럼, 바다처럼 넓은 이해심을 갖고 그 누구보다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다시 한 번 “해준아!! 사랑하네!”

복덩이로 찾아온 우리 검둥이 둘째

아기이름: 김민재 출생년월: 2016. 5.

태명: 아진이

태몽: 삼신할머니가 아기 인형을 던져주심

“어머, 어떡해! 두 줄이야”

며칠 전부터 어쩐지 피곤하다 싶었다. 꿈에 웬 할머니가 나와서 인형을 던져준 걸 덥석 받아든 것도 째싹했고, 무엇보다 한번 겪어본 듯 일상적인 피곤함은 아니었다.

물론 결혼하면서부터 어렵듯이 둘은 낳아야겠다고 생각은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얼마 전 첫째아이 두 돌이 지난 후 이력서를 다시 작성했다. 육아를 병행해야하니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 몇 안 되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고, 그 중 한군데에서 서류 합격 소식을 들은 직후였다.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 판에 임신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사정이 생겨 면접을 못 간다”고 연락하고는 며칠 동안 우울감에 시달렸다.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온 아기 천사를 모른척할 순 없는 법. ‘이왕 낳는 거 빨리 낳고 빨리 키우자’고 생각을 바꾼 후 곧 동생이 생길 첫째와도 열심히 놀아주며 태교도 신경썼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둘째를 낳았는데도

정말... 하나와 둘은 천지 차이였다. 아근이 잤은 남편이 도와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첫째가 울면 둘째가 따라 울고, 아이들을 달래다가 나도 따라 울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했던가... 응애응애 울던 둘째는 어느새 두 돌을 맞았고, 누나를 따라 어린이집도 다니게 되었다. 여유시간이 생긴 나는 취업준비를 다시 할 수 있었고 시간제 일자리이긴 하지만 복직을 앞두고 있다. 어쩌면 떠올리기도 무서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내가 더 성장하고 아이들을 예쁘게 바라볼 수 있는 거 같다.

나의 보물들 민서 · 민재야. 항상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
한테 찾아와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는 민서 · 민재가 있
어서 이 세상의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아프지 말
고 지금처럼 행복하자



안산시, 행복플러스카드 발급대상 확대

임산부도 가능
주차장, 체육시설 감면 혜택

안산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안산행복플러스 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셋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서 임신부까지 확대 운영했다. 신청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안산행복플러스 카드 소지자는 공영주차장·체육시설·수영장(안산도시공사)·여성비전센터·주민자치센터 등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수첩(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등), 개인사진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 카드의 경우 올 6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다.”며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이웃이 있을지 모르니 주변 분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 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안산시

주 소 지 :

성 명 :

생년월일:

주거형태:

유요기간:

이 용 안 내

1. 이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자장이 시정번호와 본인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이 카드도 분실·훼손·손실 시 안산시 여성가족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이용시절

임산부 사용시
 임신기간(출산 예정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임신기간(출산 예정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임신기간(출산 예정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임신기간(출산 예정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2018. 1. 1.

안 산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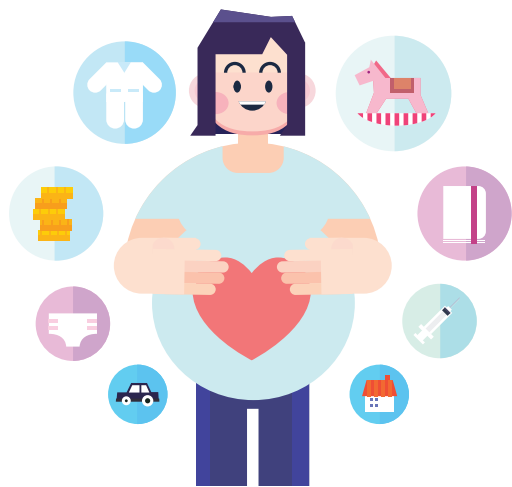
5. 카드문의: 안산시 여성가족과 ☎ 481-2600

일 시	주 소 변 경 내 역	확 인



독자 수기

“안산시에서 첫째아이도 출산장려금 준대요”



동생이 석 달 후면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엇그제 들었던 소식 중 가장 반가운 내용이 있었기에 안산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글을 쓴다.

안산시에서는 그동안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는 첫째아이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첫째 50만 원, 둘째 1백만 원, 셋째 3백만 원, 넷째 이상 1천만 원을 안산시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지원한다.

안산시가 그동안 아주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든 덕분에 출산 증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노력은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의 시대를 대비하는데 그 어느 정책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직장맘(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을 지칭)들은 항상 가사와 육아, 바깥 일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잘하려고 나름 애쓰지만, 슈퍼우먼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기에 아예 아기를 낳는 일 자체를 꺼리는 게 아닌가 싶다.

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땐 아파트 단지 내 가정보육시설의 신세를 지면서 참 많은 고충을 겪었다. 퇴근길에 아이들을 찾아 집으로 오면서 유난히 지쳤던 날은 울컥해서 복도에 주저앉아 운 적도 있었다. 그래서 아이 키우며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는 “울면서 다닌다”는 말이 있다. 그럴 때마다 “조금 힘들더라도 참자, 아이들이 잘 해주고 있으니까. 나보다 아이들이 더 힘들지 모르니까”라며 견뎌냈다.

그나마 지금은 국가와 시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출산정책을 비롯해 기업이나 사회에서도 점차적으로 육아를 위한 보육 친화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육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임신부와 직장맘을 배려해주고 신경써주는 분위기가 더욱 크게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아빠들의 노력도 필수다. 육아에 맘 흘리는 아내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준 것은 물론, 가사를 분담하고 때론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내와 아이들 아침식사 준비까지 해준다면 정말 멋진 아빠다. 가정과 직장, 사회 모두 출산과 육아에 더 세심한 배려를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김성희(단원구 초지동)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

2018년 9월 아동수당 시행

www.ihappy.or.kr

아동수당 신청 안내

01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급대상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 예시 : '12.10월 출생아는 '18.9월분 급여까지, '12.11월 출생아는 '18.10월분 급여까지 지급

~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

가구원 수	3인 가구 (1자녀)	4인 가구 (2자녀)	5인 가구 (3자녀)	6인 가구 (4자녀)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활용하여 계산 가능

02

2018년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다만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됨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권장
※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복지포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 각각(한부모가족은 1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안내” 참고)

관련 문의 안산시콜센터(☎1666-123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03

대상자 수(198만가구)가 많아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6.20~7.5)에는 혼잡이 예상됩니다.

6.20~9.30 기간 내 연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
(9월 말에 신청하면 처리 기간 등 고려 시, 11월에 9월분부터 소급 지급 가능)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가급적 연평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

연령	만 0~1세	만 2~3세	만 4~5세	전 연령
신청기간	6.20~25	6.26~30	7.1~7.5	7.6~

※ 만 0~5세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 아이 기준으로 신청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그린카드 사용해 환경도 살리고 혜택도 받아요!

소비자들이 녹색소비와 친환경생활을 밀접하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경제적 혜택인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한 에코머니포인트카드 상품이다. 에너지 절약, 녹색소비, 지자체 문화/ 체육시설 시 할인 등의 '그린특화 서비스'는 오직 에코머니 회원만이 누리실 수 있다. 그린카드를 통하여서, 지구를 지키고 그린컨슈머로 거듭나기 위한 녹색실천소비!



- 1.친환경제품 구매** _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면 에코포인트가 최대 24%적립.
- 2.대중교통 이용** _ 버스, 지하철을 탈 때 그린카드를 사용하면 이용요금의 10~20%, 기차를 탈 때도 이용요금의 5%에코머니가 적립.
- 3.에너지 절약** _ 그린카드 소지자에 한 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여, 가정 에너지 절감시 연간 최대 10만점의 에코포인트를 적립.
- 4.공공시설물 할인혜택** _ 그린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전국의 에코머니로고가 있는 국립공원 및 휴양림, 문화지자체 시설을 무료입장 또는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안산시 공원 내 수경시설 안내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곳, 공원에서 물놀이 즐겨요”

안산시 공원 내 수경시설이 여름을 맞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60여 곳(상록구 29, 단원구 31)의 넓은 공원과 도로 완충지대 등의 녹지시설은 숲의 도시 안산의 자랑이다. 뜨거운 여름, 활동적인 어린이들에게 물놀이만한 즐거움은 없다. 안산 곳곳의 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어린이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노적봉폭포공원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곳으로, 폭포와 분수를 보며 더위를 식히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아기자기한 공원 내 도설지(아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얇은 연못)는 어린 자녀들도 안전하게 물놀이하기 적당하다. 수경시설이 운영되면서 노적봉폭포공원은 가족단위 나들이객들로 더욱 북적이고 있다.

성포동에서 온 30대 학부모 김숙희 씨는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 하러 왔어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시원하고 아이들하고 오기 좋은 곳 같아요. 아이들 덕분에 모처럼 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서 좋네요” 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푸르른 자연과 더불어 안산시가 제공하는 수경시설에서 온가족이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 지역 내 수경시설 및 운영 현황은 옆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공원명	시설	위치	운영일자	운영일	운영시간
노적봉 공원	도설지	성포동 산39-1	5. 5 ~ 8. 31.	토 · 일요일, 공휴일 ※7.21~8.31 : 매일	10:00 ~ 17:00
	폭포, 분수		4. 1 ~ 9. 30.	매일	09:00 ~ 18:00 (매시 정각에 5분 가동, 15분 휴식)
반월 공원	도설지	본오동 723	5. 5 ~ 8. 31.	토 · 일요일, 공휴일 ※7.21~8.31 : 매일	11:00 ~ 16:30
성호 공원	도설지	이동 615 (식물원 뒤)	5. 5 ~ 8. 31.	토 · 일요일, 공휴일 ※7.21~8.31 : 매일	10:00 ~ 17:00
	바닥분수		5. 5 ~ 8. 31.	매일	10:00 ~ 17:00 (20분 가동, 10분 휴식)
호수 공원	연못 내 분수	사동 1509	5. 5 ~ 9. 30.	매일	10:00 ~ 12:00 13:00 ~ 15:00 16:00 ~ 18:00
와동 공원	물놀이장	와동 813-1	7. 1 ~ 8. 31.	매일 (월요일 휴장)	10:00 ~ 17:00
원고잔 공원	바닥분수	고잔동 산 87-3번지	5. 5. ~ 8. 31.	매일	10:00 ~ 17:00 (매시 정각에 20분 가동)

◇문의 : 안산시 공원과(031-481-2647) /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시자전거연맹, 자전거 무료 교실 운영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안산,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켜요”

안산시자전거연맹이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자전거 무료 교실을 운영한다.

화랑유원지, 민속공원(고잔동), 상록수체육관 세 곳 교육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 10시~오후 3시) 받을 수 있다. 교육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전거, 안전모, 보호대 등이 준비돼 있다.

자전거 타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의 하나로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하다. 건강을 지키며 주차나 교통체증에 대한 걱정도 없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자전거연맹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는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더불어 우선시 돼야 할 부분이 안전 교육이다.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교통법을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전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라.”고 말했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 정숙자(65세) 씨는 “족저근막염으로 걸으면 발바닥이 아파 2010년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타면 물을 많이 마시고 땀을 흘려서 그런지 기분이 좋고 발이 안 아파요. 이제 제 친구가 됐어요.” 라며 자전거 타기를 추천했다.

또한 자전거연맹에서 초등학교 · 중학교에 찾아가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 안전교통 봉사대’는 올해 교육 예약이 이미 끝났을 만큼 매년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현재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인 페달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오염과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건



강한 사회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마련됐다.

상록구, 단원구 전체 106개 정거장에 약 900여 대의 자전거가 비치돼 있다. 이용은 연회원 가입(이용료 3만 원)이나 일회원제(이용료 1천 원)도 가능하다. 페달로 홈페이지(<http://www.pedalro.kr>)에서 각 구별 정거장 위치와 자전거 대여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자전거연맹(031-413-1684)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시 길거리학습관, 올해 50곳으로 확대 언제 · 어디서나 · 누구든지 3인 이상이면 원하는 공부 ‘가능’



집 가까운 곳의 카페나 학원, 갤러리, 아파트 등 다양한 장소가 안산시민의 평생학습 배움터가 되고 있다. 안산시는 시민의 생활터전에서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다양한 장소에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 배움터’를 만들어 시민이 주체가 돼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학습공동체를 지원한다.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포함, 강사 파견과 주민 강사 발굴, 학습 동아리 육성 등을 지원한다. 특히, 강사는 ‘러닝 브릿지(learning bridge)’를 통해 발

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한다.

길거리학습관은 2015년 9월 카페 7곳 등 총 10개소로 시작해 2016년 30개소, 2017년 35개소로 늘어났다. 올해는 노동자를 위한 기업체 학습관과 다문화 주민을 위한 어울림 학습관, 전철역 내 학습관 등 15개소가 새롭게 추가돼 5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길동 휴먼시아 2·5단지는 공동주택 단지 중 처음으로 길거리 학습관으로 선정,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캘리그래피(Calligraphy)와 프랑스 자수 수업이 진행 중이다.

길거리학습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총 116개로 3천 명이 넘는 시민이 함께했고, 주민들의 우수 학습 결과물을 선발해 작품전시회를 갖기도 한다.

길거리학습관은 누구든지 자신의 전문성이나 재능, 끼 등을 기부할 수 있는 주민 강사 체제가 마련돼 학습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학습-일-생활이 연결되는 복합구조는 주민 강사, 서포터즈, 학습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도 유희시간대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이 되고 있다.

안산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길거리학습관을 새로 발굴해 찾아가는 평생학습 영역을 확대하고, 계속해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안산시 길거리학습관은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평생학습대전에서 사업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 문 의: 안산시 평생학습관(031-409-1877)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대 평생교육원, 전통 장(醬) 담그기 교육 “고추장 담그는 법 배워서 이웃과 나눠요”



은퇴를 전후로 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안산대 평생교육원에서 전통 장 담그기 교육을 받았다. 특히 직접 담근 고추장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의미를 더했다. 전통 장 창업과정 교육생 30여명은 지난 6월 19일 충남 청양 발효마을 ‘온직명가’에서 현장 실습을 갖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전해줄 숙성고추장 60kg을 담갔다. 고추장은 상록구 일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교육을 진행했던 박상현 교수는 “오늘 만든 고추장은 꿀과 된장이 들어간 고품질 고추장”이라며 “메줏가루에 조청과 고춧가루를 넣고 소금 간을 해서 만드는 전통고추장은 한 달 정도 숙성시켜야 먹을 수 있지만, 메줏가루 대신 숙성된장을 사용한 숙성고추장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했다.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선호도 늘고 있는 요즘,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은퇴교육으로 전통 장 창업과정을 마련했다. 교육생 허경자(59·성포동) 씨는 고추장·된장·청국장·식혜·조청·엿·장아찌 등 전통 발효식품을 체계적으로 배워 고마운 분들과 나누고 이후에는 창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데,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만드는 전통 발효식

품은 마음을 순하게 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한다.”며 수업 참여 동기를 말했다. 교육생 30여 명은 지난 5월 4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오는 8월 17일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창업 교육을 받는다. 매주 금·토·일 하루 8시간씩 진행되는 총 350시간의 교육이 끝나면 동아리 활동과 협동조합 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창업에 나설 전망이다.

박상주 평생교육원장은 “교육을 마치면 교육생 한 분 한 분이 자신만의 브랜드 갖게 될 것”이라며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마케팅을 포함한 창업 컨설팅으로 여러분의 창업을 도움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전통 장 창업과정은 오는 7월, 2기생 30명을 모집해 8월17일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안산을 비롯한 경기도 거주 만 45세 이상 중장년층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 문의: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031-400-7094~6)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전통 장 창업과정 교육생 모집

- ◆ 모집기간: 2018년 7월 2일 ~ 7월31일
- ◆ 교육기간: 2018년 8월17일 ~ 12월
- ◆ 교육요일: 금·토·일요일 오전 9:00 ~ 오후 6:00
- ◆ 모집대상: 경기도내 거주 중장년층 은퇴(예정)자
- ◆ 모집인원: 30명
- ◆ 교육회비: 무료(경기도비 지원/도구비 자부담 15만원)
- ◆ 교육접수: 메일접수(psedu@ansan.ac.kr) / 팩스((031-363-4443)
- ◆ 문의사항: 031-400-7094~6

우리는 자랑스러운 안산시 학생 명예기자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거리로 오세요



백승민
(원곡중학교)

‘다문화 도시 안산’을 대표하는 거리인 안산 다문화거리는 안산 원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러시아, 네팔, 중국, 태국 등 여러 국적의 이주민과 노동자들이 밀집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외국인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원곡보건지소 등이 있으며 편하게 만나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놀이터나 쉼터도 만들어져있다. 특히 원곡동 다문화 거리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독특한 볼거리와 먹거리도 많아 안산시민들도 즐겨 찾는 휴식처가 되기도 한다.

방송에 소개된 곳도 많아 ‘다문화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미있는 곳이다. 그리고 다문화 거리의 다른 이름도 있다. 바로 ‘작은 국제시장’이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많은 국적의 사람이 살고 있어 그 나라의 맛을 느

낄 수 있는 음식점과 과일 향신료들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점도 많다. 먼저 자신의 나라가 아닌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쓰레기통이 별로 없는 것이 아쉬웠다. 인근 주민인 김근옥(가명)씨는 “여기는 정말 맛있는 곳이 많아요. 자세히 찾아보면 숨어있는 맛집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여러 곳에 위치해 있어서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관광객 신용태(가명)씨는 “다문화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다시 오고 싶을 만큼 흥미로운 곳이에요”라고 말했다.

‘키움티켓’으로 문화생활 즐기기 –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혜택

장아영
(성안중학교)

아이들에게 문화 생활을 경험시켜 주기 위해 가족단위로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 때문에 자주 관람하기는 부담된다. 이럴 때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키움티켓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키움티켓은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예술지원 사업이며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안산시의 청소년들에게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티켓 가격 부담을 줄여 안산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 중이다.

키움티켓의 혜택은 키움회원이나 나눔회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키움회원(10인 이상 단체)은 안산시 청소년이며 청소년 관람료의 50%를 지원해준다. 나눔회원(문화

소외이웃)은 인가된 청소년 보호시설에 소속된 만 9-18세 학생이며 관람료 전액을 지원해준다.

키움티켓 신청 사이트에 방문해 키움 회원 또는 나눔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 그다음 관람하고자 하는 공연과 날짜, 시간을 선택한다. 이때 학교 단체관람은 명단 작성이 불필요하지만, 안산 청소년 10인 이상 신청일 경우 명단 작성이 필요하다. 신청 후 관리자가 승인을 하면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제 방법을 선택해 결제한다. 마지막으로 공연 당일 날 티켓이 배부되는데 관람 전 단체의 학교 인솔자는 신분증을, 청소년 단체 및 개인 신청은 학생증, 청소년증, 등본 중 한 가지를 챙겨가야 한다.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키움티켓(<http://kiwoom.ansanar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움티켓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안산시민 유영미 씨는 “아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보여줄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7월 달에 키움티켓으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에는 7월 23일과 24일에 하는 아동극 ‘업사이드다운’, 7월 24일과 25일에 하는 아동극 ‘걸어서 하늘까지’, 7월 28일에 하는 클래식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등이 있다.



안산 청소년 종합 예술제 그 현장으로

최혜원
(원일중학교)

지난 6월 14일 목요일, 15일 금요일, 16일 토요일 총 세 차례를 거쳐 2018년도 안산 청소년 종합 예술제가 열렸다. 청소년 예술제는 안산시 청소년들이 준비한 끼와 꿈을 펼칠 수 있는 자리로서 청소년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회다.

14일 목요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한국 무용, 현대무용, 발레, 한국음악 독무, 독주, 합창으로 예술제가 이루어졌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양하게 참가했다. 또, 14일 목요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시, 산문 등 글쓰기에 실력과 흥미를 둔 학생들이 참가하여 능력을 뽐내었다.

15일 금요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아름다운 목소리 뿐 만 아니라 안산 청소년들의 진심 담긴 노

랫소리와 사물놀이 소리로 사물놀이, 대중음악 등 아름다운 소리들로 두 번째 예술제가 이루어 졌다.

16일 금요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딱딱맞는 독무로 멋있는 표정으로 이루어진 댄스 그리고 청소년들의 청아하고 신나는 락 밴드 연주로 예술제의 마지막 날을 장식 했다.

14일 산문부분에 참여한 원일중학교 2학년 황채원 학생은 “백일장에 참가해 글을 쓰는 것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16일 금요일 댄스 부분에 참가한 원일중학교 2학년 김정빈 학생은 “중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청소년 예술제에 참가하게 되어서 떨리고 실수할까봐 무서웠지만 잘해내서 너무 기쁘고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렇게 꿈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안산시 청소년 예술제에서 더욱 더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로 뜻 깊은 예술제가 되길 바란다. 이날 예술제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명단은 안산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
시장A portrait of a middle-aged man with dark hair, wearing a dark suit jacket, a light blue shirt, and an orange patterned tie. He is smiling slightly and looking towards the camera. A small gold pin is visible on his lapel.

경기도
의원



Dr. Yoon Gwang



Dr. Yoko Kato is a Japanese-born, U.S.-trained physician and a board-certified pediatric endocrinologist. S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of Pediatric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where she has been working for over 15 years. Dr. Kato is also a member of the American Society of Human Genetics and the American Society of Human Endocrinology.



Dr. David H. Gustafson is a portrait of a man with dark hair, smiling, wearing a dark suit, white shirt, and a blue patterned tie.



Dr. J. H. Kim



Dr. J. H. Kim is a portrait of a middle-aged man with dark hair, wearing glasses and a dark suit jacket over a black shirt. He is smiling and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against a light blue background.



Dr. Yoko Kato is a Japanese physician and researcher. She is a member of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Atherosclerosis and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Atherosclerosis. She is also a member of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Atherosclerosis and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Atherosclerosis.



Dr. J. H. Kim

안산시
의원



Dr. Yoon Gook



Dr. J. H. Kim



Dr. Yoon Hyeon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Colleg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has been a member of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ince 2005 and has served as its president from 2015 to 2017. She is also a member of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d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Dr. J. H. Kim



Dr. J. H. Park



Dr. Yoon Hyeon is a smiling woman with short, dark, wavy hair and glasses. She is wearing a blue blazer over a light pink collared shirt. The background is a plain, light color.



Dr. J. H. Kim



Dr. Yoko Kato is a Japanese physician and researcher. She is a member of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Atherosclerosis and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Atherosclerosis. She is also a member of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Atherosclerosis and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Atherosclerosis.

A portrait of a woman with dark hair pulled back, wearing a bright pink jacket and a white patterned scarf. She is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with a neutral expression. The background is a plain, light grey.

이진분(62세) 자유한국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옥구슬같이 떨어지는 이슬방울에 취하자, 대부도에서!

경기도무형문화재 12호, 한국식품명인 10호, 대부도 특산주 ‘옥로주(玉露酒)’

대부도에 간다.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술 향기에 취한다. 백자·청자에 담긴 그 술은 옥구슬같이 떨어지는 이슬방울들을 모았다. 이슬에 취하니 머리 아플 일도 없다. 대부도 특산주, 옥로주(玉露酒)를 소개한다.

옥로주의 역사를 탐구하다보면 우리나라 곳곳의 여러 지명들이 나온다. 서산, 남원, 하동, 진주, 군포, 용인 그리고 안산. 시작은 서산 유씨 가문에서 시작됐고, 도중에 여러 지역을 거쳐 현재는 안산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1880년경부터 서산 유씨 가문의 제주옹(제사상에 올리는 술)으로 빛어지던 술은 집성촌인 전북 남원에서 산동술로 제조,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유명세를 탔고, 그 후손인 유양기 옹이 1947년 경남 하동 양조장에서 동(銅) 800근 짜리 술단지를 걸고 증류식 소주를 내리며 맥을 이어갔다. 술을 증류할 때 증기가 액화되어 옥구슬 같은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데서 붙여진 이름인 옥로주도 이때 탄생했다.

이후 유양기 옹의 큰딸 유민자 씨가 제조비법을 전수받아 대량 생산시스템을 갖췄고 경기도무형문화재(제12호)로도

등록됐다. 당시 유양기 옹의 큰딸 유민자 씨는 아들 정재식 씨와 안산 본오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유 옹은 군포 당정에 살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명칭은 ‘군포 당정 옥로주’로 정했지만 실질적인 제조·생산은 안산에서 이뤄졌다.

현재 안산 대부도에서 예도주가를 설립해 옥로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정재식 대표는 어머니 유민자 명인으로부터 전수자로 지정돼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특히, 미술을 전공하고 프랑스에서 유학한 후 대학에서 교편을 잡던 특이한 이력의 정 대표가 오직 옥로주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옥로주의 매력’을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는다.

정재식 대표는 “왜정시대 외할아버지께서 밀주를 만들다 일본 순사들에게 발각 됐는데, 그 순사들이 술맛을 보고는 너무 좋아해 처벌대신 술 빚는 것을 눈감아 줄 정도”였으며 “어머님께서 명인이 되신 후 한때는 설과 추석 명절에만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을 방문했던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옥로주를 맛본 후

그 매력에 빠져 북한으로 수십 병을 가지고 들어간 사례도 소개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1년 동안 술에 대해 공부했던 정 대표가 밝히는 옥로주의 장점은 “도수가 높은 술인데도 목 넘김이 부드럽고 후미에 남는 진한 향 그리고 역하지 않아 뒤끝이 좋은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서 2년 숙성된 옥로주를 마셨던 최경호 안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전혀 독한 술이 아닌 것처럼 목을 넘어가는 것이 부드럽고 뒤에 남는 그 향 또한 뛰어나다.”며 즉석에서 정조대왕이 안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어제시(御製詩)를 읊기도 했다.

술 향은 좋지만 술 사업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주에 부과되는 주세(酒稅)는 72%. 웬만큼 팔려서는 현상 유지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며, 이미 3~4곳의 전통주 생산업체들이 폐업을 할 정도로 상황은 어렵다.

이에 정 대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옥로주 전시관’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준비해서 내년쯤에는 오픈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서라도 옥로주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사업자: 예도
- ◆ 명인지정품목: 옥로주
-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257 (대부북동)
- ◆ 전화: 031-884-2358 (010-6620-3388)
- ◆ 팩스: 032-881-9119
- ◆ 홈페이지: <http://www.okloju.com>
- ◆ 이메일: okloju@naver.com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복나눔터...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



반월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 올해로 개장 3주년을 맞았다. 안산시와 반월농협, 농업인이 함께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고장의 먹거리를 제공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직매장은 생산자가 직접 포장, 가격 결정, 진열, 재고 관리까지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 공급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

고 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직매장은 생산자의 이름과 연락처, 농장 주소 등 생산자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생산자가 모바일로 매장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수시로 재고관리를 할 수 있다.

총370여 가구가 직매장에 출하하고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월 평균 150여 가구가 출하한다. 농협에서 실시하는 5회의 출하농업인 교육을 수료해야만 직매장에 출하하도록 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본오동에서 온 50대 주부는 “집이 가까워 자주 옵니다. 무엇보다 제품이 신선해서 믿고 먹을 수 있어 좋아요.”라고 말했다. 초지동에서 온 40대 아저씨는 “아내 따라서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제품이 다양하고 생산자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보니 믿고 먹는 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라고 했다. 직매장에 열무, 실파를 출하하는 농업인 강환기(팔곡동, 65세) 씨는 “직매장이 생겨서 소농업인들에게 많

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사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가 갈수록 직매장을 찾는 고객이 많아 힘이 생기네요. 지역 농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으니 믿고 직매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농협중앙회 안산지부, 반월농협협동조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로컬 푸드 활성화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로컬 푸드의 고품질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직매장은 나눔 장터가 열리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고잔동 문화의 광장에서도 열리며,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 중 신청한 농가들이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 반월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 위치 : 상록구 해안로 1190-1(본오동)

◇ 문 의 : 반월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031-501-5237)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시 자매결연 도시를
소개합니다.

충청북도
제천

가슴이 탁 트이는 천혜의 비경, 내륙의 바다 청풍호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청풍은 선사시대 문화의 중심지로 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세력 쟁탈지로 찬란한 중원문화를 이루었던 곳이다. 그러나 1978년부터 시작된 충주다목적댐 건설로 제천시 청풍면을 중심으로 한 5개면 61개 마을이 수몰되자, 이곳에 있던 각종 문화재들을 한 곳에 모아 지금의 자리에 '청풍문화재단지'를 조성했다. 현재 단지 내에는 53점의 문화재와 1,900여 점의 생활유물이 전시되어 있어 호수 위 작은 민속촌으로 불린다.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IC를 나와 국도 82번 도로를 타고 청풍면 쪽으로 달리는 청풍호반 길은 자연풍광과 레저휴양시설이 조화를 이룬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다. 벚꽃길 명소로 각광 받고 있는 이 길은 청풍면 소재지까지 약 13km의 비교적 긴 구간인데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매년 4월이면 '청풍호벚꽃축제'를 즐기 위해 전국에서 상춘객들이 몰려들어 장관을 이룬다.

제천은 특히 '자연치유도시'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크고 작은 산들이 많아 수려한 산세와 더불어 빼어난 조망을 갖춘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그 중에 청풍호를 둘러싼 8개의 자드락길 코스도 인기가 높다. 자드락길이란 '나지막한 산기슭의 비탈진 땅에 난 작은 오솔길'을 말한다. 청풍호반과 어우러지는 정겨운 산촌을 둘러보는 길이자, 청풍호의 시원한 바람과 은은한 약초향기, 명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길이다. 등산에 자신이 없다면 왕복 40분 정도 소요되는 청풍호모노레일을 타고 비봉산 정상에 올라 청풍호를 감상할 수도 있다.



삼한시대에 축조된 저수지, 제천 의림지

의림지는 삼한시대 축조된 우리나라 최고의 저수지로 둘레 약 2km 구간에 수 백년된 소나무와 여러 종류의 버드나무, 30m의 용추폭포, 그리고 영호정, 경호루 등의 빼어난 정자들이 어우러져 있다.

의림지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명승지이면서 주변에 솔밭공원, 국궁장,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집 소풍가던 유원지 풍경처럼 제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특히 의림지 야경은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렌즈에 담고 싶어할 만큼 황홀하고 아름답다. 저수지를 따라 오래된 소나무와 경관조명이 조성되어 있어 야간에도 산책로를 걸으며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인근에 '의림지역사박물관'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박물관은 의림지를 주제로 한 상설전시관을 비롯해 제천 점말동굴에서 나온 구석기시대 유물 250여 점을 복제·전시하는 등 다양한 기획전시와 체험학습으로 역사교육과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음악과 영화, 그리고 자연의 조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멋들어진 청풍호반을 배경으로 개최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005년 제1회 영화제를 시작으로 음악과 관련해 특화된 영화제다. 매년 8월에 청풍호반과 의림지, 제천 시내에 위치한 메가박스 영



화관에서 진행되며, 이국적 정취를 자아내는 청풍호반 야외 특설무대에서는 영화와 음악을 결합한 대규모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된다. 영화제 기간 동안 국내외 약 100여 편의 음악영화가 상영되고, 거리 곳곳에는 30여개 팀의 거리의 악사들이 음악공연을 펼친다. 올해 개최되는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6일간 청풍호, 의림지를 비롯한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화·건강·약초향이 어우러지는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중부내륙권 최대의 약초 유통지이자 정부에서 약초 웰빙특구로 지정한 한방도시 제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지난해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 열기를 계승하고 기존에 조성된 전국 최고의 한방인프라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매년 9월말~10월초에 한방엑스포공원에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개최된다. 올해에도 기존의 산업박람회에 축제 성격을 가미한 특색있고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경찰
기고

공권력 경시 풍조로 병들어 가는 민중의 지팡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곧 법에 대한 도전이다.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해 살아 있어야 사회가 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실행 선고는 10%대로 미약하다. 술에 취한 후 폭언·폭행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술이 깨면 하나같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다.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권력 경시 풍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술에 취한 민원인이 파출소에 찾아와 반말을 하면서 침을 뱉고, 근무자에게 다가가 먹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며, 파출소의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최근 많은 공감 속에서 종영한 ‘라이브’라는 경찰드라마에서도 공권력 경시 풍조를 여지없이 보여 준 바 있다.

‘2017년 대검찰청 공무집행 방해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비율이 최근 4년 동안 5배나 급증했다. 2013년 16.7%이던 재판회부 비율은 2017년에는 83.8%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구속 기소자도 같은 기간 261명에서 지난해 470명으로 늘었다. 반면 법원의 실행선고 비율은 10% 선에서 요지부동이다.

이는 폭력과 주취 폭력범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권력 폐해의 원인이 사법부”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외국의 공무집행방해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물리적인 폭력만 폭행으로 간



주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빠지지 않는 행위,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행위, 체포에 불응해 팔을 휘두르는 행위 등도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본다. 경찰 폭행 형량은 최고 4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작지만,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처음 형량의 두 배, 세 번째는 최소 25년 형을 구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는 가해자와 합의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는 경찰 한 개인의 피해가 아닌 국가가 피해를 본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일반적인 폭행사건보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대부분 기소처분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체포에 저항하다가 현장 경찰관을 폭행하면 상해정도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권력 경시 풍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거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기소하며, 개인적인 합의를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국가와 각 지자체장이 연계하여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을 병행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와 그 치료에 대한 사회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독자
투고

공기청정기의 안 좋은 점은?!

“우리 공기 청정기 살까?”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아프다며 남편이 말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살 것도 많은데 굳이 공기청정기를 사야 될까 생각이 들지만 평소 목이 약한 남편을 위해 하나 장만하기로 했다. 어차피 사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 좋은 거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공기청정기 중에선 고가인 L사의 제품을 구입했다. 미세먼지가 난리 인터넷 주문을 완료하고도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물건을 받아 볼 수 있었다.

공기청정기를 처음 본 내 느낌은 ‘생각보다 꽤 크다’였다. 청정기의 전원버튼을 누르니 공기가 좋지 않다며 빨간 불빛을 발하고는 열심히 공기를 정화한다. 공기를 정화하면서 나오는 가벼운 바람이 매우 상쾌하게 느껴졌다. 나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공기청정기 기능을 살펴봤다.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는 물론, 생활냄새까지 제거해 준다고 적혀 있었다. 그밖에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 여러 설명을 보면서 ‘비싼 만큼 꼼꼼하게 공기를 정화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다.

“짜잔~ 공기청정기야~ 자기가 목이 아프다고 해서 좋은 걸로 하나 몰래 샀지!”라고 말하자 남편은 “오~ 조금 크지만 바람이 더럽게 약한 선풍기를 사왔구만!”이라고 화답했다. “…….”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괜히 샀나 생각이 들었다. 무이자긴 하지만 6개월 할부까지 받으며 산건데 이런 반응이라니…

“빨리 씻고 나와! 너 들어오니깐 공기 더럽다고 청정기가 난리잖아!” 나는 남편에게 말하면서 ‘살짝 현관문을 열었다고 이렇게 빨간색이 되나?’라고 생각했다. 요즘 미세먼지가 진짜 난리기는 한가보다.

남편이 씻고 나올 때쯤 공기는 깨끗해져 청정기는 파란색을 띠고 있었다. “와~ 공기청정기 때문에 그러냐? 평소 씻고 나올 때보다 더 상쾌하다. 그런데 아까 내가 들어와서 애가 빨갰던 거야? 지금은 파랗네?”

“맞아~ 애가 당신 옷에 묻은 먼지들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냄새도 감지해서 탈취도 해줘!”

“오~ 좋다 좋아”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에 역시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우리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저녁에 먹은 음식이 약간 체한건지 속이 더 부룩하고 가스가 찼다. 아직 방귀를 트 사이가 아니기에 불편하긴 하지만 영화 끝날 때까지 참아보자는 생각으로 앉아 있었다. 영화 중간쯤 됐을 때 나는 더 이상 참기 힘들었다. 하지만 참을 필요도 없었다. 나는 소리 없이 잘 낄 자신이 있었다. 평소에 냄새도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은밀히 나눠 줬다. ‘피식~’ ‘피식~’ ‘피식~’ 완벽했다. 나조차도 내가 낄지 모를 정도로 소리도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 순간 남편이 말했다. “너 방귀 줬나?”

나는 내심 깜짝 놀랐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자 남편이 “니 뒤에서 공기청정기가 새빨개져서 냄새 난다고 난리야. 너무 빨개서 기계 터지겠네. 작작 좀 꺼.”

나는 너무 창피했다. “나 안 줬다니깐 왜 모함해! 공기청정기가 고장났나보지!” 그러자 남편이 “니 똥구멍이 고장났나보지! 화장실이나 가!”라고 말했다.

“…….” ‘아~ 역시 공기청정기는 사지 말았어야 했나보다….’

• 오혜리(단원구 고잔동)

독자
투고

여름철 불쾌지수! 이해하고 배려하며 극복합시다!



여름이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가지만 나는 거기에 더해 뜨거운 기계 열을 받으며 일을 해 더 많은 땀을 흘린다.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처럼 공단에서 일하거나, 흔히 말하는 바깥일을 하는 사람들에게겐 땀이 곧 노력의 산물인 셈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

는 말할 나위 없이 높지만, 때론 그 땀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에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엔 말이다.

여름이 되면 예전에 읽었던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 다음 구절이 종종 생각난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과는 다르게 여름에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런 구절이다. 요즘 같이 무더운 여름엔 내 체온이, 내가 흘린 땀이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계절의 특성상 어쩔 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각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배려) 또한 필요하다. 운동 후엔 샤워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체질상 땀이 많이 나는 경우 데오도란트(냄새제거제) 사용하기, 불필요한 스킨십 하지 않기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엔 샤워를 못할 상황이면 갈아입을 옷을 챙기기도 한다.

무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다툼·범죄가 늘어난다고 한다. 평소엔 웃어넘기던 장난에도 기분이 상해 분위기가 험악해 질 수도 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여름철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조심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집에서 직장에서도 여유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먼저 건네 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시원한 커피 한 잔 나누는 건? 기분 좋을 칭찬을 해주는 건? 함께하면 일도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시원한 커피 한 잔에 기분과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무더운 여름철, 몸이 처지고 힘들지만 조금만 힘내서 타인을 위해보자! 내 노력으로 불쾌한 분위기는 줄고 유쾌한 분위기가 생겨날지 모른다. 어디선가 들었다. 분위기는 파악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 이상우(상록구 본오동)

독자
투고

안산시에서 마련한 캄보디아 노동자 쉼터에 대한 기대

이역만리 타향살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일진대...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마음으로 떠나면 한국에까지 와서 온갖 궂은일을 하며 열심히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마음이 찡하다. 특히 우리 안산시에는 유난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데보다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안산시가 주한캄보디아 대사관과 함께 캄보디아 문화원 인근에 쉼터(상록구 이동 638-3번지)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자립과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공간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온 기억이 있어 이 쉼터에 더욱 관심이 갔다. 이 쉼터에서는 일자리와 거처가 없는 캄보디아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기 보호를 비롯해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란단.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쉼터를 통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경제적 도움도 받고, 열심히 일해서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경험담 한 가지를 전하고 싶다.

얼마 전 이른 새벽, 여느 때처럼 운동을 위해 헬스장으로 바빠 걷던 중 공원 벤치에 있는 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았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소년 같은 동남아 노동자 청년은... 아~, 그 젊은 노동자는 홀로 울고 있었다. 한손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면 자기가 일하는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 할 텐데, 그는 아마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고향의 어머니께 전화를 통해 애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듯했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은 한국의 3D직종(더럽고 어렵고 위험해서 기피하는 업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노동 강도에 비해 적은 보수도 그들이 겪는 어려움일 테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타국에서 겪는 외로움, 멀리 있는 조국에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일 것이다.

훌륭한 국가와 국민은 강하고 부유한 것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포용력 넓고 이해심 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민족이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동남아에서 들어와 우리가 어려워 기피하는 일을 해주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따스하게 대해주자.

• 김기원(상록구 팔곡일동)

경기도 청탁금지법 Q&A

사례1 친구이면서 직무관련자

Q 시청 건축 인허가 담당공직자 A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고등학교 동창 민간인 B가 저녁식사를 하였다. 이 경우 저녁식사 금액 10만원을 민간인B가 계산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법 위반에 해당됨. 직무관련이 없을 경우 가액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 현재 건축허가 처리가 진행중이므로 가액범위 일지라도 식사제공을 받을 수 없음.

⇒ 해설

청탁금지법에서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보다 직무 관계가 우선되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 사이일지라도 건축허가 담당공무원과 건축허가 신청자가 식사를 할 경우, 직접적인 이해가 진행 중인 관계이기 때문에 식사 등 접대가 허용되지 않음.

사례2 상품권(유가증권) 선물제공

Q 직무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A. 법 위반임.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 됨.

⇒ 해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18.1.17 시행령 별표 1 개정)

—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상품권, 공연티켓, 영화표,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

☞ 음식물 가액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의 악용 등 편법수단을 차단하고,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제3회 전국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 ◇ 행사명 : 제3회 전국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 ◇ 일시 : 9. 15.(토) 10:00 ~ 14:00
- ◇ 집결장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 걷기코스 : 대부해솔길 6코스 · 바다향기수목원길
- ◇ 내용 : 개회식, 걷기행사, 부대행사, 경품추첨 등
- ◇ 접수기간 : 6. 4.(월) ~ 9. 5.(수)

- ◇ 참가접수 : www.ansantour.kr
- ◇ 주최/주관 : 안산시/(사)안산시관광협의회
- ◇ 문의 : 1899-1720

시민안전을 위한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 운영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 기간 : 6.26.~7.5.까지(10일간)
- ◇ 대상 : 재난,환경오염,범죄 및 우리주변의 각종위해요인
- ◇ 신고기관 : 경찰서112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군부대 1338

2018 하반기 상상대학 일상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



- ◇ 접수기간 : 면제자 : 7.9.~13. 일반 : 7.16.~23.
- ◇ 교육기간 : 8.6.~12.12.(16주)
- ◇ 교육대상 : 안산시민 누구나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인터넷접수(www.iansan.kr)
- ◇ 문의 : 안산시평생학습관 (031-409-1877)

채용박람회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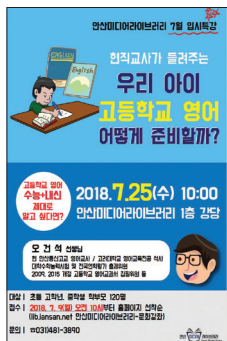


- ◇ 개최일시 : 7.5(목) 14:00 ~ 16:00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
- ◇ 참여대상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 ◇ 주최/주관 : 안산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를 제공
-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를 마련

7월 입시특강

우리아이. 고등학교 영어공부법



- ◇ 일시 : 7.25.(수) 10시~12시
- ◇ 대상 : 학부모 120명
- ◇ 장소 :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 ◇ 강사 : 오건석 (현 안산동산고 영어교사)
- ◇ 접수 : 7.9. 10시부터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서 가능
- ◇ 문의 : 안산 중앙도서관(031-481-3890)

제23회 안산시 양성평등주간행사 개최



- ◇ 일시 : 2018. 7. 3.(화) 13:30~15:30
-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 주요내용 : 식전행사, 본식(시상 등), 축하행사
- ※ 축하공연 : 가수 노사연 · 이무송 부부



책 읽는 안산 / 6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소설과 영화 두 배로 즐기기』

아동



마틸다

저자 로알드 달 / 출판사 시공주니어

영화 마틸다(Matilda, 1996)의 원작. 다섯살짜리 독서광 마틸다,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신동, 그러나 아빠의 심한 구박에 대한 복수로 초강력 접촉제 소동, 유령 소동을 벌인다. 마틸다의 아빠 워우드-속임수로 중고차를 팔아 떼돈을 번 사업가, 마틸다에게 TV만 보라고 강요한다. 살집이 비어져 나올 정도로 똥똥한 엄마...

청소년



아름다운 아이

저자 R.J.팔라시오 / 출판사 책과콩나무

영화 원더(Wonder, 2017)의 원작. '아름다운 아이'는 선천적 안면기형으로 태어난 열 살 소년 어거스트 폴먼이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간 뒤 벌어지는 일 년 동안의 일. 어거스트가 안면기형이라는 자신의 장애, 얼굴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편견, 아이들의 끈질긴 괴롭힘을 불굴의 의지와 가족의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친구의 우정의 힘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성인



더 마션(The Martian)

저자 앤디 위어 / 출판사 알에이치 코리아

마션(The Martian, 2015)의 원작소설. 15세에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해 '천재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작가 앤디 위어의 데뷔 장편소설. 궤도 역학, 화성의 물리적 환경, 우주비행의 역사, 식물학 등 박학 다식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작가 고유의 독특한 문학적 감각을 마음껏 선보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험준한 지형이 펼쳐진 불모의 황무지 화성에서 수많은 위험에 맞서는 끈질긴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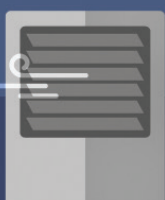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우리집 에너지를 부탁해

집에서 이렇게 에너지 절약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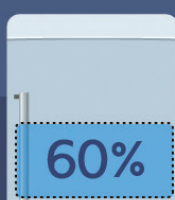
세탁물을 한번에 모아서 세탁횟수를 줄여요!



에어컨 온도는 25~26도로 유지, 바람의 세기는 약으로!



전기밥솥은 장시간 보온모드로 두지 않아야 해요.



냉장고의 음식물은 60%만 채워주세요